

## 大韓建築士協會第1回 會長盃爭奪 本部 및 서울시支部 親善蹴球大會

본 협회는 지난 10월16日(토요일) 하오 2시부터 성동구 하일동에 있는 산업은행 운동장 롱그라운드에서 제1회 회장배쟁탈 본부 및 서울시 지부 친선 축구대회를 즐겼다. 본부와 서울시 지부 및 분소 직원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규복 대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대회는 임원들이 선수로 참가 하여 이채를 띄운 가운데 서울시 지부는 본부를 2대0으로 물리치고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1977년도 제2회 대회부터는 전국지부 친선 축구대회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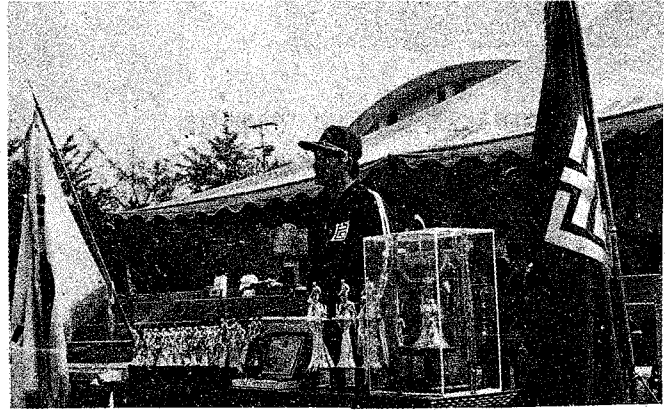
(시 상)

우 승 : 서울시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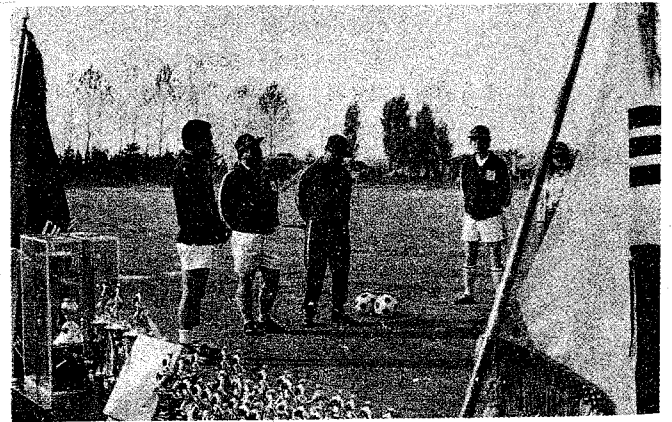
최우수개인상 : 송인창 서울시지부간사

감 투 상 : 김진성 이 사

인 기 상 : 임인혁 서울시지부 사업부장



①



②

## 서울시支部 第105

### 戰鬪警察隊 慰問

서울시 지부는 지난 10월15日 하오 제105전투 경찰대를 위문하고 서울 시경 작전계장 및 지부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인광 부대장의 부대작전현황 설명을 청취한뒤 꾸민 위문품(라디오 10대 사과 10상자) 과 금일봉을 전달하여 대원들의 사기를 돋구는 한편 마음을 흐뭇하게 하였다.

위문단 일행은 부대장의 안내로 서울 수도권 사수의 취락 지구를 돌아본뒤「우리도 사격 솜씨를 재 점검해야 한다」는 이봉로 지부장의 제의에 일제히 동감하고 M<sup>2</sup> 카빈 사격을 실시 하였는데「제각기 이 만큼의 실력이라는 것을 적어 안다면 남침 야욕은 일제 사라질 것」이라고 서울 시경 작전 계장의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위문단 일행은 부대 구내식당에서 대원들과 점심을 들고 위문을 마쳤다.

#### 사진설명

- ① 개회사를 하는 회장
- ② 주심의 주의사항
- ③ 양측선수 인사교환
- ④ 위문품을 전달하는 광경



③



④